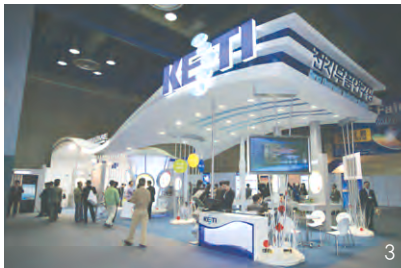


IT-SoC Fair 2006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SoC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관하는 'IT-SoC Fair 2006'이 지난 11월 1일~2일 양일간 COEX 인도양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Fabless 반도체업체들이 중심이 되는 SoC(System on Chip)/IP(Silicon Intellectual Property)전문 전시회로 IT 핵심부품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취지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그림 1〉 'IT-SoC Fair 2006' 개막식
 〈그림 2,3,4〉 전시장 내부 광경

47개국 총 49개의 국내외 업체 및 기관이 참가하여 총 150개 부스 규모로 열린 IT-SoC Fair 2006에는 코아로직, 티엘아이, 토마토엘에스아이, FCI, 넥스트칩 등 국내 IT SoC업체를 이끌어가는 주요 업체들이 휴대폰용 반도체, Mobile TV Solution, Display Driver IC, Image Sensor, SIP, EDA Tool 등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ETRI, KETI 등은 그간 정부에서 IT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해온 IT-SoC와 IT융합기술에 대한 국책 연구개발 성과물을 전시하여 국내의 기술개발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IT-SoC협회의 황중범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전문성 강화와 참가업체의 마케팅 활동의 효율성 증대에 행사의 포커스를 맞추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치밀한 준비해왔다."고 하면서 "비록 역사가 긴 전시회는 아니지만 매해 더욱 내실 있는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해 나날이 질적, 양적 성장을 해가고 있는 전시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IT-SoC Fair 2006'은 메인행사인 전시회를 포함하여 컨퍼런스, 비즈니스상담회, SoC Night, Job Fair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개최되었다.

IT-SoC/임베디드 SW 컨퍼런스 2006

IT-SoC Fair 2006과 더불어 "Digital Convergence & Fusion Technology"를 주제로 IT-SoC/임베디드SW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LG 전자 안승권 부사장의 "휴대폰 기술 발전과 SoC", 그리고 iSuppli사 Greg Sheppard 수석 부사장의 "The Market Outlook for SoC Opportunities" 키노트 연설로 시작된 이번 컨퍼런스는 Mobile TV,



〈그림 5〉 컨퍼런스 현장

멀티미디어, 무선통신, 융합기술 및 센서, SoC기반기술,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하여 IT SoC 및 정보통신 관련 종사자들이 최신 고급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산업계 28명, 연구소 5명, 학계 5명의 주제 발표로 진행되어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체의 현장감 있는 내용이 많이 반영되었다. 사전등록 시작과 동시에 수십 명이 등록하는 등 개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번 컨퍼런스는 400명 이상이 등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내년도의 컨퍼런스 결과도 기대하게 하고 있다.



〈그림 7-2〉 비즈니스 상담회 현장

2006 IT SoC 대상



〈그림 6〉 '2006 IT SoC 대상' 시상식

우수한 SoC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계의 개발 의욕을 고취하자는 취지로 2004년에 제정된 IT SoC 대상이 3회를 맞았다.

대상과 신기술상 시상식은 'IT-SoC Fair 2006' 전시회 개막식에서 거행됐으며, 영예의 대상으로는 넥실리온의 '지상파DMB 수신 통합칩-NX3300'이, 신기술상으로는 넥스트칩의 'Multi-Standard Video Decoder/Encoder'가 선정되었으며 두 상 모두 정통부장관상이 수여됐다. Best Product상은 'SoC Night 2006'에서 거행됐으며 매직아이의 '멀티미디어 SoC-MMSP2'와 에프씨아이의 'T-DMB/DAB RF 튜너칩-FC2501'이 선정되어 IT-SoC협회장상이 수여됐다.

비즈니스 상담회

이번 "중국 시스템 업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중흥통신, TCL, KONKA, 닝보버드 등 9개 중국 IT업체의 16명의 바이어가 초청되었다. 여



〈그림 7-1〉 비즈니스 상담회 현장

기에 코아로직, 토마토엘에스아이, 엠씨에스로직, 넥실리온, 디스플레이칩스 등 20여 개의 국내 SoC전문기업이 상담에 참가하였으며, 총 80건의 상담을 통해 1,94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회 이후에도 미팅을 가졌던 양국 기업들이 방문 상담과 제품 테스트 등을 통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IT-SoC 전공인증과정 Job Fai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oC 산업진흥센터는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IT-SoC 전공인증과정에 참여한 석박사 학생들을 상대로 인력양성 후원기업과의 채용면담을 주선하여 우수한 인력의 효과적인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IT-SoC 전공인증과정 Job Fair"를 개최하였다.



〈그림 8〉 면접 진행

올해 Job Fair에는 한양대, 숭실대, 광운대, 아주대 등 21개 대학에서 IT-SoC 전공인증과정에 참여한 재학생과 졸업생 58명이 참가하였다. 이들과 SoC산업진흥센터 인력양성 후원기업으로 금년 Job Fair에 참가한 삼성전기, 엠텍비전, 씨앤에스테크놀로지, 텔레칩스 등 14개 SoC관련기업과의 현장 채용면접이 이루어졌다.

Job Fair 참여 후원기업에 한하여 IT-SoC 전공인증과정 등록학생, 특히 '07년 2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체 수에 제한 없이 사전 면접 신청 접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전 신청자 이외에도 현장에서 추가 면접을 주선함으로써 현장 채용 기회 폭을 넓혔다.

이번 Job Fair에서는 기업체 홍보 및 채용정보 안내서와 함께 각 참가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별 인사채용 담당자를 안내하는 참가업체 Directory를 배포하는 등 학생들과 SoC기업간의 채용면접회 확대와 더불어 SoC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우수 SoC설계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 센터에서는 IT-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의 Job Fair가 국내 SoC설계인력 수급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